

## 4·3 평화공원과 유적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상임이사

4·3특별법이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후 3년 9개월만인 지난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와서 국민과 유족들에게 4·3 당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 역사의 아픈 한 자락을 접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토대 하나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가 발행되고,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4·3 진상규명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 대정부 건의안 7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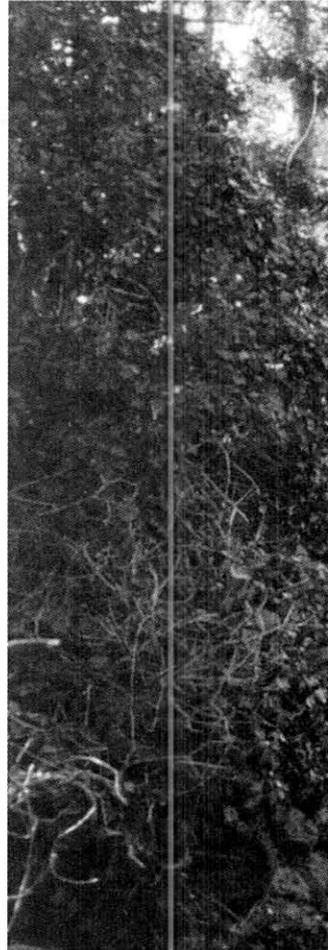
그럼 거칠게나마 제1 단계의 진상규명이 끝난 지금, 바람직한 과거청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우리는 그간의 진상규명 과정을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보고서가 밝힌 대로 '대정부 건의안 7개조(1. 정부의 사과 표명 2. 추모기념일 제정 3. 평화 인권자료로의 활용 4. 4·3평화공원 조성 지원 5.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의 생계비 지원 6.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지원 7.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 지원)'의 사항

을 재점검하고 단계적인 계획에 따라 실질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4·3을 기념하는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도 과거청산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보고서의 7개 건의안 중 첫째 사항은 대통령의 사과로 이미 마무리됐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사항은 어느 것 하나 실행이 쉽지 않은 것들이다. 유족들이나 4·3 관련 단체가 각 사항마다 이행 전략을 수립해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4·3특별법 개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 4·3 평화공원

제주시의 외곽인 봉개동에 위치한 4·3 평화공원은 본래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다시는 이 땅에 유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에게 교훈을 주며, 이러한 비극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및 세





4·3항쟁 당시 조천면 선흘리 주민들이 마을을 방어하기 위해 쌓았던 '낙선리 성'. 남아 있는 4·3 성 중 그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으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복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계평화에 기여' 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런 형태의 추모 및 평화공원은 쓰라린 역사를 간직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아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조성됐다. 광주 5·18 기념공원, 부산 민주공원, 오키나와의 평화공원, 중국의 난징대학살 기념관,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기념관, 스페인의 전몰자의 계곡, 독일이나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캄보디아 킬링필드와 관련한 투어슬랭 박물관 등이 모두 그렇다.

4·3 평화공원은 봉개동 12만 평 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 땅을 2001년부터 매입하고, 공

원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993억 원이 소요되는 큰 공사로 제1 단계 사업이 끝난 2003년 말 현재 시급한 위령제단과 위령탑, 추념광장 등이 완공됐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2 단계 사업에서는 총 480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실시 설계를 하고 기반 시설을 한 후 4·3 사료관과 전시 및 컨텐츠 시설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 단계 작업이 시작되는 2007년 이후에는 401억 원의 예산으로 4·3문화관, 조형물을 건립하고, 조경시설

등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원래 기념사업이란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사업이다. 우리에게 역사가 중요시 되는 이유는 시간적인 연속선상에서 살아 가고 있는 인간들의 과거 행적이 현재, 미래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역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 기도 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한다. 결국 4·3 평화공원 조성은 지금까지 한국전쟁을 전후 한 시기 국가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분자로 몰려 온갖 불이익을 당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수치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바꾸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4·3 유적은' 제주인들이 해방과 4·3을 겪고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통일에의 열정, 집단학살, 연좌제 같은 사건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 뒤엉킨 채 남아있는 장소이거나 기념물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4·3 유적은 방치돼 훼손이 가속화돼 왔다. 그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의 4·3운동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모든 노력이 경주돼 있었고, 정부나 지역주민들 또한 4·3 유적에 대한 문제는 의도적으로 방치해 왔기 때문이었다.

#### 4·3유적, 어떻게 해야 하나

제주4·3연구소에서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4·3 유적 기초조사사업을 벌였다. 사업은 4·3 당시 제주도 마을을 162개로 분류하고, 그 중 조사마을 120개의 대상 유적을 1. 잃어버린 마을 2. 4·3 성터

3. 은신처 4. 희생터 5. 민간인 수용소(지서나 군의 유치장, 각종 창고 건물 등) 6. 주둔지(군·경·서북청년회·무장대 등) 7. 희생자 집단묘지 8. 비석 9. 역사 현장 10. 기타' 등 10개 항목으로 나눈 후 각 마을마다 하나하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제주도의 4·3 유적은 600여 개(곳)로 조사됐다.

4·3 유적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것은 희생터였다. 4·3 당시 군경토벌대가 무차별로 민간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다 학살했던 장소인 희생터는 마을마다 산재해 있다. 이 곳은 추후 상세조사를 벌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비 건립과 함께 소공원을 조성하여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후세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장소로 남겨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4·3연구소는 조사를 마치면서 현재 그 흔적이 잘 남아있는 15개 곳을 '중요 보존

혹은 복원 대상 유적'으로 선정했다. 이 중요 유적 15개는 곧 상세조사를 벌여 '보존 할 곳과 '복원' 할 곳으로 구별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그 이유는 현재 조성 중인 4·3 평화공원은 4·3의 기억을 역사화 하는 중심 공간이나 역사성을 갖춘 사건의 현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 유적을 복원하여 평화공원과 함께 4·3 유적 벨트라인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기념관에는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에 이른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4·3 평화공원 조성이나 4·3 유적 보존사업은 우리의 아픈 역사는 망각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여 우리 모두 구원의 길에 이르자는 사업이다.

**야드바셈 기념관에는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에  
이른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4·3 유적 보존사업은 우리의 아픈 역사는  
망각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여 우리 모  
두 구원의 길에 이르자는 사업이다.**